2025.11.20.

주요 이차전지 업체 2025년 3분기 실적 공시

- 부진한 매출과 저조한 수익성, 신용도 하향 압력 지속

민원식 기업4실 선임연구원
02.368.5659
wsmin@korearatings.com

김경률 기업4실 책임연구원
02.368.5344
krkim@korearatings.com

이지웅 기업4실 실장
02.368.5475
jwlee@korearatings.com

한국기업평가(이하 'KR')가 유효등급을 보유한 주요 이차전지 업체 중 7개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SK아이이테크놀로지, 엔켐)가 2025년 3분기 실적을 공시하였다.

3분기 실적을 확인한 결과, 주요 이차전지업체들은 대체로 부진한 매출과 저조한 수익성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2023년 하반기 이후 전방 주요 수요처인 전기차(이하 'EV')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었고, 2025년 트럼프 2기 출범으로 핵심 시장인 미국에서 EV 수요 성장을 견인해 온 각종 친환경 정책이 축소되면서 부정적 사업환경이 지속된 영향으로 판단된다.

등급 변동 모멘텀 측면에서는 업계 전반의 신용도 하향 압력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24년 이후 이차전지 업체들의 주요 재무지표는 하향변동요인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다. 전방 수요 둔화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영업현금창출력이 저조한 가운데, 국내외 잔여 투자로 자금소요가 지속되며 부족자금을 외부차입으로 충당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업체에서 원가효율성 개선 추진과 유상증자, 유휴자산 매각 등 자구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업계 전반의 차입 부담은 확대되는 추세다.

2025년 4분기 이후에도 전방 EV 수요 둔화와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로 업계 전반 부정적 사업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 시장인 미국은 2025년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주요 친환경 규제가 축소·폐지되고 EV 구매 보조금 지급이 조기 종료되는 등 정책 환경이 악화되면서 업계의 성장동력이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유럽의 경우 미국 대비 중국 업체에 대한 정책적 진입장벽이 낮아 LFP 배터리를 앞세운 중국 업체의 침투율이 확대되고 있어 국내 업체들의 물량 확보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KR은 향후 핵심 시장인 미국에서의 EV 판매 흐름과 완성차업체의 전동화 전략 변화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방 EV 수요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이차전지업체들의 에너지저장장치(이하 'ESS') 수주 확보 동향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1. 2025년 3분기 실적 리뷰

1) 영업 실적

KR이 유효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주요 이차전지 업체 중 LG에너지솔루션(이하 'LGES'), SK온,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SK아이이테크놀로지(이하 'SKIET'), 엔켐이 2025년 3분기 실적을 공시하였다. 주요 이차전지

업체들은 대체로 부진한 매출과 저조한 수익성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2023년 하반기 이후 전방 주요 수요처인 EV 시장 성장세가 둔화된 데다, 2025년 트럼프 2기 출범으로 핵심 시장인 미국에서 EV 수요 성장을 견인해 온 각종 친환경 정책이 축소되면서 부정적 사업환경이 지속된 영향으로 판단된다.

셀 업체인 LGES는 2023년 하반기 이후 분기 매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 3분기에는 연결기준 매출이 5조 6,999억원으로 직전 분기에 이어 6조원을 하회하였다. 다만, 비교적 견조한 EV 판매 실적을 기록한 GM과 TESLA를 주거래처로 확보하고 있어 매출 감소 폭이 경쟁사에 비해 크지 않았던 가운데, 2025년 2분기부터 본격 발생하기 시작한 ESS향 매출이 EV향 물량 감소를 상쇄하여 직전 분기 대비로는 매출이 증가하였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ESS향 물량 확보를 통한 유휴 생산라인의 활용과 원가효율성 개선 노력에 힘입어 2025년 들어 개선세가 이어졌다. 2025년 3분기 2,358억원의 EBIT을 창출하였고, 3,655억원의 AMPC 보조금을 반영할 경우 조정EBIT 규모는 6,013억원(조정EBIT마진 10.5%)에 달한다.

SK온은 북미 EV 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주력 사업인 배터리 부문의 판매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11월과 2025년 2월에 각각 합병된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과 SK엔텀의 석유사업 부문 실적이 반영되면서 2024년 4분기 이후 전사 외형은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2025년 3분기 배터리 부문 매출은 전분기 대비 2,998억원 감소한 1조 8,079억원에 그쳤으나, 전사 연결기준 매출은 14조 4,96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40억원 증가하였다.

수익성 역시 배터리 부문의 적자를 석유사업 부문이 상당 부분 보완하는 모습이다. 배터리 부문은 물량 감소와 고정비 부담 확대로 인해 저조한 수익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2025년 3분기 1,731억원의 AMPC 보조금이 반영되었음에도 조정EBIT 기준 1,248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반면, 석유사업 부문은 동기간 1,417억원의 영업이익을 창출하여 전사 연결기준 조정EBIT마진을 0.1%의 소폭 흑자로 견인하였다.

[표 1] 셀 업체 영업실적

(단위: 억원)

업체	구분	23.4Q	24.1Q	24.2Q	24.3Q	24.4Q	25.1Q	25.2Q	25.3Q
LGES (연결)	매출	80,010	61,287	61,619	68,778	64,512	62,650	55,654	56,999
	EBIT(AMPC 제외)	881	-316	-2,525	-177	-6,028	-830	14	2,358
	AMPC	2,501	1,890	4,478	4,660	3,773	4,577	4,908	3,655
	조정EBIT	3,382	1,574	1,953	4,483	-2,255	3,747	4,922	6,013
	조정EBIT마진	4.2%	2.6%	3.2%	6.5%	-3.5%	6.0%	8.8%	10.5%
SK온 (배터리 부문)	매출	27,231	16,836	15,535	14,308	15,987	16,054	21,077	18,079
	EBIT(AMPC 제외)	-2,587	-3,700	-5,720	-368	-4,407	-4,701	-3,398	-2,979
	AMPC	2,401	385	1,119	608	813	1,708	2,734	1,731
	조정EBIT	-186	-3,315	-4,601	240	-3,594	-2,993	-664	-1,248
	조정EBIT마진	-0.7%	-19.7%	-29.6%	1.7%	-22.5%	-18.6%	-3.2%	-6.9%
SK온 (연결)	매출	27,231	16,836	15,535	14,308	93,668	148,771	136,824	144,964
	EBIT(AMPC 제외)	-2,587	-3,700	-5,720	-368	-4,003	-3,341	-2,117	-1,562
	AMPC	2,401	385	1,119	608	813	1,708	2,734	1,731
	조정EBIT	-186	-3,315	-4,601	240	-3,190	-1,633	617	169
	조정EBIT마진	-0.7%	-19.7%	-29.6%	1.7%	-3.4%	-1.1%	0.5%	0.1%

주)1. 조정영업이익률 = (EBIT+AMPC)/매출액, AMPC 보조금 반영 후 기준
2. SK온 연결기준: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2024.11.01), SK엔텀(2025.02.01) 합병 효과 반영
자료) 각 사 연결감사보고서, 분/반기보고서

소재업체 역시 전방 EV 수요 둔화로 판매 부진과 저조한 수익성이 이어졌으나, 전방 셀 3사에 대한 판매 의존도 차이에 따라 업체별 실적 흐름에는 차별화가 나타났다. LGES가 주거래처인 포스코퓨처엠은 직전 분기 대비 매출이 증가하고 수익성이 개선된 반면, SK온에 대한 판매의존도가 높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SKIET, 엔켐은 판매 부진과 저조한 수익성이 이어졌다.

포스코퓨처엠의 2025년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핵심 시장인 유럽과 미국에서의 LGES향 양극재 물량 증가에 힘입어 직전 분기 대비 2,139억원 증가한 8,748억원을 기록하였다. 영업이익률은 직전 분기 대비 7.5%p 상승한 7.6%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안정적 Captive 판매 기반의 기초소재 사업 부문이 양호한 수익성을 유지한 가운데, 이차전지 소재 부문에서의 물량 증가를 통한 가동률 상승 효과로 전사 수익성이 개선되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주거래처인 SK온과 삼성SDI의 EV향 물량 둔화 여파로 저조한 매출 흐름이 이어졌다. 영업이익률은 판매부진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3분기 연결기준 각 8.1%, 15.6%의 우수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다만, 양사의 실적에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지분 투자 관련 일회성 수익 각 418억원, 2,118억원이 반영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본원적인 수익성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SKIET와 엔켐은 SK온향 판매 의존도가 높아 전방 수요 둔화에 따른 물량 감소로 저조한 매출 부진이 지속되었다. 또한 주요 공장의 전반적 가동률이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수익성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2025년 3분기 연결기준 영업적자 규모는 SKIET 472억원(영업이익률 -59.7%), 엔켐 272억원(영업이익률 -30.2%)으로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였다.

[표 2] 주요 소재 업체 영업실적

(단위: 억원)

업체	구분	23.4Q	24.1Q	24.2Q	24.3Q	24.4Q	25.1Q	25.2Q	25.3Q
포스코퓨처엠	매출	11,459	11,384	9,155	9,228	7,232	8,454	6,609	8,748
(연결)	영업이익	-736	379	27	14	-413	172	8	667
	영업이익률	-6.4%	3.3%	0.3%	0.2%	-5.7%	2.0%	0.1%	7.6%
에코프로비엠	매출	11,804	9,705	8,095	5,219	4,649	6,298	7,797	6,253
(연결)	영업이익	-1,147	67	39	-412	-35	23	490	507
	영업이익률	-9.7%	0.7%	0.5%	-7.9%	-0.8%	0.4%	6.3%	8.1%
에코프로	매출	12,748	10,206	8,641	5,943	6,313	8,068	9,317	9,594
(연결)	영업이익	-1,194	-298	-546	-1,088	-1,213	14	162	1,494
	영업이익률	-9.4%	-2.9%	-6.3%	-18.3%	-19.2%	0.2%	1.7%	15.6%
SKIET	매출	1,725	462	616	508	593	582	827	791
(연결)	영업이익	269	-674	-587	-730	-919	-696	-537	-472
	영업이익률	15.6%	-145.9%	-95.3%	-143.7%	-155.0%	-119.6%	-64.9%	-59.7%
엔켐	매출	518	781	1,083	1,014	778	682	641	903
(연결)	영업이익	-200	-118	6	-54	-487	-192	-27	-272
	영업이익률	-38.7%	-15.1%	0.5%	-5.3%	-62.7%	-28.1%	-4.3%	-30.2%

자료) 각 사 연결감사보고서, 분/반기보고서, IR자료

2) 업체별 등급 변동 모멘텀

2024년 이후 이차전지 업체들의 주요 재무지표는 하향변동요인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다. 전방 수요 둔화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영업현금창출력이 저조한 가운데, 국내외 잔여 투자로 자금소요가 지속되며 부족자금을 외부 차입으로 충당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업체에서 원가효율성 개선 추진과 유상증자, 유휴자산 매각 등 자구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업계 전반의 차입 부담은 확대되는 추세로 신용도 하향 압력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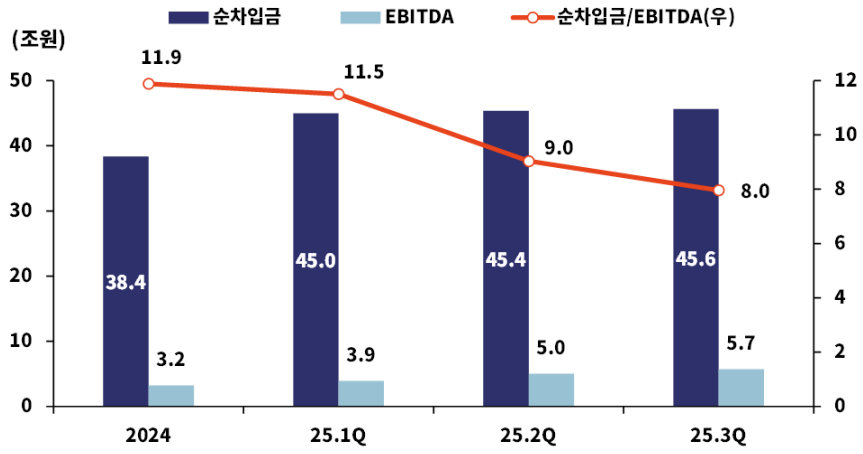
[표 3] 주요 이차전지 업체 등급변동요인 정량 지표 추이

구분			등급변동요인		2023	2024	25.1Q (TTM)	25.2Q (TTM)	25.3Q (TTM)
			상향	하향					
셀	LGES(AA/S)	조정EBITDA마진(%)		<10.0	13.2	14.1	15.7	17.8	19.8
		순차입금/조정EBITDA(배)		>3.5	1.3	3.2	3.4	3.4	3.7
	SK온(A+/S)	차입금의존도(%)	≤27.5		50.0	50.1	55.6	54.9	50.9
		순차입금/조정EBITDA(배)	≤1.5	>7.0	N.A.	N.A.	N.A.	39.6	32.2
소재	포스코퓨처엠(AA-/S)	순차입금/EBITDA(배)	≤3.0	>5.0	13.6	15.8	18.9	20.9	12.4
		부채비율(%)		>150.0	142.6	38.9	139.0	150.7	104.0
	에코프로비엠(A-/S)	순차입금/EBITDA(배)	≤3.5	>7.0	5.3	18.9	23.3	15.9	9.3
	에코프로(BBB+/S)	순차입금/EBITDA(배)	≤3.5	>7.0	2.6	N.A.	N.A.	126.3	10.2
	SKIET(A/N)	순차입금/EBITDA(배)		>7.0	4.6	N.A.	N.A.	N.A.	N.A.
	엔켐(BB+/N)	순차입금/EBITDA(배)		>10.0	17.1	N.A.	N.A.	N.A.	N.A.

주) 1. 조정EBITDA = EBITDA + AMPC, AMPC 보조금 반영 후 기준
2. TTM(Trailing Twelve Month)은 최근 12개월(직전 4개 분기) 합산 기준. 차입금의존도는 해당 시점 기준
3. TTM 순차입금/(조정)EBITDA는 해당 시점말 순차입금 금액을 최근 4개분기 (조정)EBITDA 합산으로 나누어 계산
4. (조정)EBITDA 부(-)의 값인 경우 순차입금/(조정)EBITDA 지표 N.A.(Not Available)

자료) 연결감사보고서, 분/반기보고서

[그림] 주요 이차전지 업체 합산 순차입금 및 커버리지 추이



주) 1. LGES, SK온,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SKIET, 엔켐 6개사 연결 합산 기준. 에코프로비엠은 에코프로의 연결대상 종속회사
2. 2025년 1~3분기 수치는 TTM(Trailing Twelve Month) 기준

자료) 각 사 연결감사보고서, 분/반기보고서, KR재구성

- LGES는 TTM기준 25년 3분기 등급 하향 모멘텀이 직전 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북미 투자에 따른 CAPEX 지출로 차입금이 증가하여 순차입금/EBITDA 지표가 3.7배를 기록하며 하향변동요인을 충족하였다. 다만, 원가효율성 개선에 힘입어 AMPC 보조금을 반영한 조정EBITDA마진이 19.8%로 상승하는 등 수익성 회복이 이어지고 있다. 향후 투자 지출 최소화를 계획하고 있어 개선된 수준의 수익성 유지를 통해 커버리지 지표가 개선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SK온은 TTM기준 25년 3분기 등급 하향 모멘텀이 직전 분기 대비 약화되었다. 2025년 8월 실시한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힘입어 차입금이 축소되었고, 계열사 합병을 통한 석유사업 부문의 실적 반영으로 전사 수익구조가 개선되었다. 2025년 3월말 이후 차입금의존도가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순차입금/조정EBITDA 지표는 여전히 하향변동요인을 충족하고 있으나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한 모습이다. 한편, 2025년 11월 우수한 재무구조와 수익창출력을 지닌 계열사 SK엔무브를 추가 흡수합병하였다. 합병을 통해 전사 수익구조가 보완되고 재무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포스코퓨처엠은 TTM기준 25년 3분기 등급 하향 모멘텀이 직전 분기 대비 다소 약화되었다. 2025년 8월 약 1.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고 차입금을 축소함에 따라 부채비율이 하향 변동 요인에서 벗어났다. 순차입금/EBITDA 지표는 여전히 하향변동요인을 충족하고 있으나, 수익성 개선과 차입금 축소 영향으로 직전 분기 대비 개선되었다. 다만, 주요 거래처인 LGES향 물량 변동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내재해 있어, 신규 거래처 확보 및 LGES향 물량 추이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에코프로비엠은 TTM기준 25년 3분기 등급 하향 모멘텀이 직전 분기와 유사한 수준이다. 2025년 2분기 이후 수익성 회복을 통해 순차입금/EBITDA 지표가 개선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하향변동요인을 충족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지분 투자 관련 일회성 수익이 2025년 2분기와 3분기 영업이익에 각 405억원, 418억원 반영되었음을 감안하면 실질 커버리지는 지표 대비 열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모회사 에코프로가 확보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직·간접적인 재무적 지원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에코프로는 TTM기준 25년 3분기 등급 하향 모멘텀이 직전 분기와 유사한 수준이다. 주력 자회사인 에코프로비엠과 마찬가지로 2025년 2분기 이후 순차입금/EBITDA 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하향변동 요인을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연결기준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지분 투자 관련 일회성 수익이 2025년 2분기와 3분기 영업이익에 각각 405억원, 2,118억원 반영된 점을 감안하면 실질 커버리지는 지표상 수치보다 열위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한편, 2025년 10월 주력 자회사인 에코프로비엠 지분 일부를 PRS 방식으로 매각해 약 8천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하였다. 이는 향후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재원 마련 측면에서 재무안정성 통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SKIET는 TTM기준 25년 3분기 등급 하향 모멘텀이 직전 분기 대비 소폭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8월, 3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차입부담이 일부 경감되고 자본이 확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비 부담을 상쇄하기에 부족한 공급 물량이 지속되어 EBITDA가 부(-)의 값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요 커버리지 지표 또한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향후 주요 공장의 가동률 회복을 통한 수익성 개선 여부 및 수준에 대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엔켐은 TTM기준 25년 3분기 등급 하향 모멘텀이 직전 분기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2025년 3분기 중 242억원의 전환사채가 보통주 전환됨에 따라 차입금이 축소되고 자본이 확충되었다. 다만, 저조한 수익구조로 대규모 영업적자와 부(-)의 EBITDA가 지속되고 있어 주요 커버리지 지표가 미흡한 수준이다. 2025년 9월말 잔여 전환사채가 637억원이고, 현재 주가가 해당 전환사채의 행사가격을 크게 하회하고 있어 단기간 내 전환사채의 추가 전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및 차입부담 완화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본다.

2. KR's View 및 주요 모니터링 요인

1) 이차전지 업황 전망

- **2025년 4분기 이후에도 전방 EV 수요 둔화와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로 국내 이차전지 업계 전반의 부정적 사업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 시장인 미국의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친환경 규제가 축소·폐지되고 EV 구매 보조금이 2025년 9월 30일부로 조기 종료되는 등 부정적 정책 환경이 전개되고 있다. 중국 이차전지 제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 및 AMPC 보조금 지급 배제 등 대중 견제 조치로 국내 업체들의 대중 경쟁우위는 확보될 것으로 보이나, EV 수요 성장세 둔화로 업계 전반의 성장동력은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유럽은 신차 배출가스 규제 강화와 영국, 독일과 같은 주요 국가에서의 EV 보조금 지급 재개로 우호적 정책환경이 조성되며 EV향 이차전지 수요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 대비 중국 업체에 대한 정책적 진입장벽이 낮아 LFP 배터리를 앞세운 중국 업체의 침투율이 확대되고 있어 국내 업체들의 물량 확보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 글로벌(비중국) EV 이차전지 시장에서 중국 CATL의 점유율은 2021년 14.0%에서 2025년 9월 누계 기준 28.5%로 상승한 반면, 국내 셀 3사의 합산 점유율은 동일 기간 55.6%에서 38.4%로 하락하였다.

2) 주요 모니터링 요인

- **미국 EV 판매 추이 및 완성차 업체의 전동화 대응 전략**

  핵심 시장인 미국에서 2025년 9월 30일부로 최대 $7,500에 달하던 EV 구매 보조금이 조기 종료되었다. 미국의 주요국에 대한 자동차 및 부품 관세 부과로 완성차 업체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존 EV 보조금을 충분히 대체할 수준의 자체 인센티브 제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 구매가격 상승에 따른 EV 수요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나, 현대차 등 일부 완성차 업체에서 2025년 10월 이후 주요 EV 모델에 대해 보조금 공백을 상쇄시키기 위한 할인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미국 EV 판매 추이 및 주요 완성차 업체의 EV 판매 전략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국내 이차전지 업체들의 ESS 물량 수주**

  핵심 시장인 미국과 유럽에서의 부정적 사업환경을 감안할 시 2026년까지 EV향 물량은 정체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셀 3사를 비롯한 주요 이차전지 업체들은 EV 시장 수요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성장성이 높은 ESS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LGES의 경우 2025년 2분기부터 북미에서 ESS용 LFP 배터리를 생산하여 납품하고 있으며, SK온은 2025년 9월 미국에서 1GWh 규모의 ESS 물량을 수주하여 2026년 하반기부터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충분한 규모의 ESS 배터리 양산능력 확보에 다소 시일이 소요됨을 감안하면 2026년까지는 ESS 수주를 통한 물량 확보가 EV 물량 감소폭을 보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27년 이후에는 ESS 물량 본격 공급으로 유의미한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셀 3사를 비롯한 국내 이차전지 업체들의 ESS 물량 수주 상황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유의사항]

(1) 한국기업평가㈜(이하 '당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은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분석 시점에서의 당사의 의견입니다. 또한, 당사가 제공하는 보고서 등의 제반 연구자료(이하 '간행물')는 상기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당사 또는 필자 개인의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신용위험을 제외한 다른 위험(금리나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가치 변동위험, 해당 증권의 유동성위험, 내부절차나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위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등급 및 간행물에 포함된 당사의 의견은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며,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의 미래 상환능력 등에 대해 예측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이러한 예측정보는 실제 결과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환경변화 및 당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신용등급 산출 및 간행물 발간(이하 '신용평가업무 등')에 이용되는 모든 정보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각종 공시자료 등의 자료원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당사는 제3자 요청 신용평가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등급 산출 시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않으며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으로부터 수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 및 이들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 하에 신용평가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정보의 오류 및 사기, 허위에 따른 결과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당사는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분석자•분석도구 또는 기타요인에 의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사는 신용등급 및 간행물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증하거나 확약하지 않습니다. 당사 간행물의 모든 정보들은 신용평가업무 등에 필요한 주요한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으로 평가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열된 것은 아니며,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당사 신용등급 및 간행물 상의 정보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당사는 금융상품의 매매와 관련한 조언을 제공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정 유가증권의 매수, 매도 혹은 보유를 권유하는 정보가 아니며 시장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정보도 아닙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그 내용으로 이용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고 금융상품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은 스스로 투자대상의 위험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각자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은 시장 전문기관을 일차적인 이용대상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개인투자자에 의한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아 이를 이용하여 개인투자자 스스로 투자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외부전문기관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시되지 않은 신용등급이나 제3자 요청 신용평가에 따라 산출된 신용등급의 경우 신용평가 요청인 이외에는 해당 신용등급을 믿고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5)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사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Copyright 2025, Korea Ratings Inc.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대표전화: 368-5500 FAX: 368-5353.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한국기업평가㈜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정보도 당사의 서면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되거나 복사, 인용(또는 재인용), 배포될 수 없습니다.